

## 연제구, '2025년 함께하는 밥상, 행복주방' 개강식 개최

2018년 시작한 사회관계망 회복 프로그램||요리수업·건강관리·생애 재설계 교육·나눔 활동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입력 : 2025-05-21 14:42:13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지난 15일 중장년 1인 남성가구를 위한 사회관계망 회복 프로그램 '함께하는 밥상, 행복주방' 개강식을 개최했다.

'함께하는 밥상, 행복주방' 사업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과 이마트 연제점,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등과 협업하여 중장년 1인 남성가구의 고독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연제구 대표 고독사 예방 사회관계망 회복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8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중장년 1인 남성가구 20명을 대상으로 △가정식 기초요리수업 △인생 재설계 교육 △문화 체험 △나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총 14회)하여 참여자들이 요리를 배우며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자자는 "그동안 집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요리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수업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집에서도 직접 음식을 만들고, 내가 만든 음식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행복주방을 통해 요리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연제구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가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복주방처럼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